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8.(금) 10:00

5 분 자 유 발 언

(아이들이 뛰노는 활력 복구,
산림레포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임 채 오 의 원)

- 아이들이 뛰노는 활력 복구, 산림레포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 조문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둔
임채오 의원입니다.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의 숲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활력 있는 북구를 기억합니다.

2022년 북구 신천공원 소나무숲 일원에는 숲 밧줄놀이,
트리클라이밍을 체험하기 위해 20여 명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한 아이가 밧줄을 타고 나무에
올라가 자연을 만끽하듯 공중에서 양팔을 벌리자
친구들은 박수를 보냈고, “나무를 꼭 안으니 숲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아 좋아요”라며 숲이 주는 감사함과
숲 활동의 성취감을 느끼며 연신 즐거워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림레포츠 국민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산림레포츠에 관심이 있으며, 과거 휴양, 치유와 같은 정적인 형태에서 신체를 활용한 체험 위주의 동적인 형태로 산림 여가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구는 외곽으로 산이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고,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70.5%에 달하는 지역으로, 2024년 수립된 ‘북구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용역’에서 시설 확충의 큰 틀만 제시했을 뿐, 주민들의 다양한 산림 여가활동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림레포츠와 관련하여 주민의 산림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북구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트리클라이밍 관련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의 정상부까지 접근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로프를 타고 이동하는 트리클라이밍은, 로프체험의 한 종류로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다소 전문성이 동반되는 다른 종목과 달리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산림레포츠입니다.

우리 구도 과거 신천공원에서 트리클라이밍 등을 이용한 숲 체험 교실을 운영했지만 활동 이후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예산 문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의 정서적 성장과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스포츠학회가 2018년 발표한 트리클라이밍 관련 연구에서는 “트리클라이밍이 아동·청소년의 조화로운 운동기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인식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트리클라이밍을 향후 공원 등 산림에서 진행할 각종 교육 및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레포츠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을 만큼 대회 개최로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경북 울진군은 2023년 20여 차례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26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3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8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적극 유치한
경북 청송군은 그간의 효과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객 확충을 위한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산악레포츠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23년 12월 수립한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에도 생태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산악MTB대회 등 ‘사계절 레포츠 대회 유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단계에서
벗어나 북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는 산림레포츠의 정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전문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남 거제시, 강원 원주시,
전북 정읍시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또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북구 주민들이 산림레포츠를 통해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